



유통가 '빅3'
다가온 주춤시점에
사외이사 영입 '분주'
니



Life

K-바이오
올해 들어
시밀러 허가 4개
L2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등 규제철폐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서울시, 도시정비계획 변경안 발표 입체공원 사업장에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12일 내놴다.

우선,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고도·경관지구에 저축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이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지난 1월 20일 오전 10시 20분경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즉시 도입할 마야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았다. /서울시

이와 관련해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 관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최근 발표한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무단결근 교사 해임, 정당했다"

지혜복 교사, 보복성 인사 주장
시교육청 앞에서 1년째 1인 시위
업무차질에 불법시위 퇴거 요청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보한 뒤 보복성 전보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1년 넘게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 대해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는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교사의 전보 및 해임은 적절한 행정절차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학생간 성폭력 문제를 제보한 뒤 전보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교사는 8개월간 전보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9월 해임됐다.

지난달 지씨를 비롯한 20여명의 시위대는 청사 본관 출입문을 잠그었고, 시위대 20여명이 결국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수 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지씨의 전보는 중학교 교사 전보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 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통합전보원칙은 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 교사도 2019년 A중학교 전보 시 이 원칙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A중학교로 전보됐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정책 펼친다

371억 투입, 노인 맞춤 일자리 제공
'노노케어' 등 취약 노인 돌봄 강화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대비하고, 노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고양시 역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7.3%를 차지하며, 오는 2028년에는 2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2% 증액한 37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총 2991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건강한 노인이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노노(老老)케어' 사업, 아동·청소년에게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 '경륜전수활동', 독거노인 가정에서 식료품을 관리하는 '식품안전도우미' 사업 등을 통해 노인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양(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9500원으로 인상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부적합 가맹점 차단 등 관리 강화

서울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결식 우려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 7346명이다. 지원 방법별로 아동 급식카드(이하 꿈나무카드) 1만 5486명,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1만

1274명, 도시락·부식 배달 586명이다. 시는 '꿈나무카드'가 아동 급식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9만 2000여개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일반대중음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점 등 8개 업종이며, 해당 업종의 신규음식점은 영업점을 오픈해 카드단말기 설치 시 자동으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꿈나무카드 신규 가맹점이 자동 등록되기 전 AI가 유해 키워드를 분석해 부적합가맹점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시는 부적합가맹점 이용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상시 점검·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10만 846개소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류 위주 판매 업소, 고급음식점 등 6084개소를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개인 맞춤형 전공·진로 상담 제공

전공진로가이드센터 개소

중앙대학교는 지난 10일 서울캠퍼스 204관에서 전공진로가이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공진로가이드센터는 학생 맞춤

형 전공·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설립됐다. 800여 명의 재학생들이 밀도 높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전공·진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다.

그간 전공진로가이드센터는 바캉

회를 개최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번에 센터 공간 구축이 완료되면서 보다 자유롭게 전공 및 진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향후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 지원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가이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단과대학·학과(부) 맞춤형 전공 상담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6 | 해질 / 1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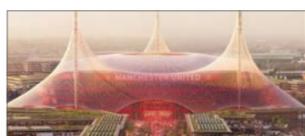
3월 13일 (木)
음력 : 2월 14일

수도권 날씨
3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4, 동두천 0/15, 가평 -1/14, 파주 -2/14, 서울 3/14, 양평 1/14, 인천 3/11, 수원 2/13, 용인 2/13, 평택 1/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박지성 친정' 맨유, 3조7000억 쏟아 10만석 규모 경기장 신설 /사진 뉴시스
▲영3부 버밍엄 백승호, 홍명보호 합류 앞두고 시즌 첫 골

▲'이강인 연장 투입' PSG, 승부차기 끝 리버풀 잡고 UCL 8강행
▲송영진·정동윤·박종훈·김건우 4파전...SSG 5선발 오디션은 계속된다

▲'밀라노행 티켓 잡아라'...쇼트트랙 세계선수권 14일 개막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공방... '절차 하자' vs '무효 아냐'